

"아 내 업장이 이렇게 두텁구나. 다겁생 동안 쌓인 업장을 녹여야 비로소 참선(參禪)의 길로 들어설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일과 중에 능엄주를 염송하는구나"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진언'이라 불리는 대불정능엄신주(大佛頂勝嚴神呪). 능엄주 인터넷 수행도량 '정림사량방(cafe.daum.net/jeonglmsarang)'

에 올라온 한재가불자의 글이다. '왜 능엄주인가'에 대한 대답 그 자체다. 때문에 조계종 前 총정 성철 스님 서용 스님 등 큰스님들은 "부처님 마음과 직결되는 능엄주력을 화두참선에 들기 전에 병행할 것"을 후학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왜 그랬을까? 그 까닭이 무엇이고, 능엄주를 어떻게 의아 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번뇌망상 없애고 정진력 키워줘

'능엄주 염송' 이 선수행의 기초가 되는 이유



'능엄주' 염송은 수행자들의 업장을 녹이는 기초단계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불대참회문(禮佛大懺悔文)' 독경에 맞춘 108배와 함께 진행된다. 사진은 불자들이 의왕 정림사에서 능엄주 염송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철저한 '자력 정진'
 타력에 의한 기원이나 스님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와 불공을 배격했던 성철 스님. 선승(禪僧)인 스님은 왜 능엄주 염송을 강조했을까?
 성철 스님은 '철저한 자력 정진'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지은 악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고 삼

기 때문에 자력에도 타력의 요소가 있고, 타력에도 자력의 요소가 있다"며 "이 둘은 상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적 관계에 있어 자력에 의해 타력을 빛내고, 타력에 의해 자력을 빛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 신심과 발심 일으켜

1988년부터 생활참선을 위주로 도심 포교를 해온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능엄주' 염송이 선수행의 길잡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능엄주 염송의 핵심이 회광반조에 있다는 것.

혜거 스님은 "빛을 보면 빛을 보는 그 눈을 돌이켜 보듯, 빛이든 소리가든 남새든 보는(觀) 그 눈을 원만히 통달(圓通)해 삼매로 들어가는 행법이 바로 능엄주 염송의 고갱이"라며 "이 때문에 능엄주 염송이 선수행자에게 깨달음의 확신과 발심을 일으켜준다"고 말한다.

하남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도 "능엄주를 지송하면 청정 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역설한다. 능엄주의 뜻이 '용맹스럽게 정진해 선정을 닦는 데 힘을 돕는 주문'인 것처럼, 마음의 온갖 장애를 이겨낼 수 있고 수행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때문에 능엄주 염송이 선종 사찰에서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전해 왔다는 것이다.

원영 스님은 "능엄경"의 정수를 담은 능엄주 염송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의 중요한 기도법이었다"며 "427구로 이뤄진 능엄주를 일념으로 지송하면 온갖 죄업이 남김없이 사라져 청정한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힌다.

◆ 정확히 큰 소리로 빠르게

능엄주 1편을 염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8분. 하지만 능엄주 염송 초심자에게는 하루 종일 외도 20분 넘기가 힘들다. 그만큼 주문 자체가 낯설고, 입에 익는데 시간이 걸린다.

30년전 성철 스님에게 능엄주 염송을 지도받은 쑤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65)은 "한 번이라도 정확히 발음하고 큰 소리로 빠르게 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입속에서 능엄주를 '웅얼~

웅얼~' 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느려도 정확한 발음으로 능엄주를 외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도 능엄주 수행자는 횡수에 집착하기보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능엄주 염송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움직여 부처님 법에 이탈되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병을 모르는 것보다 병을 알고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집중을 하는 데에만 위신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 노병철 기자

능엄주 염송은 언제부터?

중국 당대 총림 수행법 성철 스님 국내 퍼뜨려

능엄주 염송은 아비라 기도와 함께,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성철 스님이 실의에 빠진 불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일러 주면서부터다. 그 연원은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으로, 현재는 해인사 백련암을 비롯해 전국 성철문도회 사찰 10여 곳을 중심으로 매년 네 차례씩 기도회를 하고 있다.

능엄신주 염송 도량

합천 백련암	(055)932-7300
서울 정인사	(02)523-8088
수원가마산원	(02)2603-9175
부산 정수사	(051)246-3065
부산 옥전사	(051)781-1744
부산 해탈정사	(051)703-9641
부산 고심정사	(051)464-0088
대구 정혜사	(053)624-9852
마산 정인사	(055)256-5450
하남 정심사	(031)791-7732
의왕 정림사	(031)426-4004
산청 권의사	(055)973-1277
산청 길상선사	(055)973-6861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90> 얼굴가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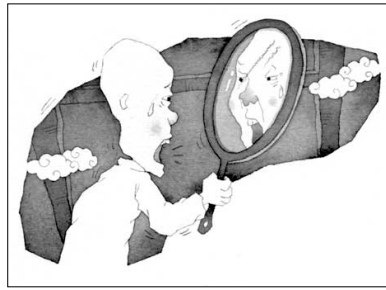
침심을 한참 넘긴 그래도 곱게 늙은 노보살님이 어여쁜 20대 소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가난 가난해도 '얼굴가난' 만큼 서러운게 없단다."

지금도 그런대로 봐 드릴만한 얼굴이다. 젊을 때는 인물이 좋았을 것 같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 더욱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 차분한 얼굴은 기도수행의 결과란 말인가? 그 시절에는 성형외과도 없었을 텐데?

이른 바 '얼짱 시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몸짱'까지 함께 요구해온다. 그 와중에 '못생긴 건 용서해도 뚱뚱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유행한다. 하긴 그 말이 맞긴하다. 얼굴이야 부모

라고 보면 나폴레옹 역시 단신이었다는 말이 된다. 공자는 머리통이 언덕같이 평평하게 생겨 공구(孔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각이 진 머리 뺨에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설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적 콤플렉스에서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서 인류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으니 범부와는 다소 차별성을 가진다.

혜능선사 역시 등신불을 보면 인물이 별로였고 방아를 짚을 때 몸무게가 모자라 돌을 허리춤에 찼다는 것으로 보아 멍치도 애소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노스님들은 인물 없는 제자들을 보고는 '나한같다'는 표현을 종종



못난 외모로 서러워하는 그대여

양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相이 아닌 도리 알아야

'다'는 표현을 종종 하신다. 나한 전에 가보면 정말 개성 있게(?) 생긴 공산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굴모양보다는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수행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를 칭찬인줄 알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심을 알고 보면 그

게 아닌 것이다. 3조 승한 스님은 풍병으로 머리칼이 모두 빠져 '적두(赤頭) 즉 '대머리 승한'으로 불렸다. 도안법사는 얼굴이 검어 서스

스로 '흑두타(黑頭卿)'임을 자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교단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흥선천 선사는 목욕탕에서 스승의 등을 밀어주면서 "법당은 좋은 데 열음이 없다"고 하여, 허우대는 말짱한데 수행력이 발휘되지 않았고 그것을 탓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법문삼아서 '고운 마음씨' 운운하는 말들이 정자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또 위위가 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알 수 있을 때 비로

소 제대로 된 상(相)을 볼 수 있다는 도리를 함께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절집인이 가진 딜레마이기도 하다. 순입금은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군의 소리를 오늘까지 듣고 있다. 현대심리학에서도 키가 작으면서 오는 열등감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그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희관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마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초요법, 기주요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기치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주요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불자님께 알립니다

고통받는 불자들에게서 자비행을 고심한 끝에 청정 고을 경북영양천의 오지 일월산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나무 뿌리만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경험으로 정성껏 다려서 병마에 고통 받는 불자님 여러분들께서 고민없이 복용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불자님들께서 건강하셔서 불구정도가 이룩됩니다.

1. 자연산 * 퇴직감자의 효능 *

- 당뇨(천연이눌린이 다량함유)에 탁월한 효능 및 강장식품
- 각종암과 성인병예방 및 고혈압, 간, 위장, 심장두근거림과 대장운동촉진으로 변비에도 효능(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됨)

2. 자연산 * 헛개나무의 효능 *

- 간장, 대장, 신장, 위장치료의 효능
- 간경화, 지방간, 간암예방, 만성 관절염의 치료와 알콜해독은 물론 술로 인한 황달에 효능

3. 자연산 * 뽕나무의 효능 *

- 고혈압, 중풍, 당뇨, 대장, 소장, 관절
- 수족마비, 각기병, 소변불리에 효능

위 내용으로 고통 받는 불자님께서 전화를 주시면, 108분께 「50봉들이 1박스」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전화번호 : 054)682-5808
 ※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관 법 사 총무 성덕 합장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인비록 人秘錄 www.heaven777.com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안 펴냄/372쪽/15,000원

2005년 사단법인 대한명인 문화예술교류회에서 선정된, 관법 분야 해광 하순천 대한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공증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화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돌은 업과 살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증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 되어 있다.

문의: 도서출판 대도대안
 전화 063) 643-7285 / 팩스 063) 643-7782